

# 다문화사회에서 고승의 역할

## -신라사회를 중심으로-

안 경 식  
부산대학교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첫째, 신라사회가 고립되고 폐쇄된 단일문화사회가 아니라 다문화사회의 성격을 지녔음을 밝히고, 둘째, 신라사회에서 최고 지성인 집단이었던 고승이 다문화사회와 관련하여 수행하였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고, 셋째, 이를 통하여 불교인이 신(新) 다문화사회인 21세기 한국사회에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데 있다. 신라의 건국은 동질 문화를 유지해온 토착민이 아닌 이질 문화를 가진 이주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신라사회는 출발부터 다문화사회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가 인종 다문화사회가 아닌 문화 다원사회, 즉 실질적 다문화사회가 된 것은 불교가 도입되면서부터이다. 다문화사회였던 신라사회에서 고승이 수행한 역할은 문화 전달자, 문화창조자, 문화적 갈등조정자 등 세 가지다. 6세기부터 다수의 신라의 승려들이 천축이나 당나라에 구법 유학을 떠났고 현지의 문화를 타지에 전달함으로써 동아시아사회를 보다 개방된 사회, 다문화사회로 만들도록 하였다. 또 외지에서 받아들인 문화를 바탕으로 신라의 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고승들은 화쟁사상, 원융무애사상과 같은 불교사상으로 조화와 모순 극복의 논리를 제시하였으

며, 아울러 무속이나 유교 등 다른 사상과의 갈등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신라사회에서 수행한 고승들의 역할은 이 시대의 불교인들에게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주제어: 다문화사회, 고승, 신라, 지성사, 문화창조자, 문화전달자, 갈등해소

## I. 머리말

한때 우리 사학계에서는 신라사회를 후진적, 고립적, 폐쇄적인 사회로 본 적이 있다. 그것은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중앙집권체제의 정비나 선진 문물, 문화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었던 것에서 오는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신라사회가 외국과의 문물교류가 활발했음을 밝히는 내용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 특히 페르시아 등 서역과의 교류 내용도 밝혀지는 등 세계와 소통한 국가였음도 알려지고 있다. 이 글은 신라사회가 고립되고 폐쇄된 단일문화사회가 아니라 다문화사회의 성격을 지녔음을 밝히고, 신라사회에서 최고 지식인, 지성인 집단이었던 승려, 특히 고승이 다문화사회와 관련하여 수행하였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힘으로써 종교인이 신(新) 다문화사회인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라사회가 다문화사회라는 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나 신라사회는 출발부터가 다문화사회의 성격을 지녔다 할 수 있다. 이는 신라를 건국한 집단이 그 이전부터 동질 문화를 유지해온 토착민이 아니라 이질 문화를 가진 이주자라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혁거세를 추대한 것은 고조선의 유민 집단인 6촌(6부)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sup>1)</sup>, 6촌의 지배세력

1)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 시조혁거세거서간 조에는 “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짜기에 나누어 살면서 여섯 촌을 이루고 있었는데...”라는 기록이 있고, 『삼국유사』

이 고조선의 유민이라는 점은 그간 역사학계에서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리고 이는 고조선의 전형적 묘제로 알려진 토광목관묘의 조성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sup>2)</sup> 즉 이전의 묘제인 지석묘의 축조가 기원전 1세기를 기점으로 사라진 점과 아울러 6촌의 촌장이 모두 산 정상에서 내려온 설화를 볼 때 6촌의 촌장이 이주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3)</sup> 그들의 이주 이유는 위만조선이 망해서일 수도 있고<sup>4)</sup> 혹은 진(秦)의 습격을 피해서일 수도 있을 것이다.<sup>5)</sup> 기록에 의하면 조선의 유민들이 진(秦) 혹은 한(漢)의 침략과 수탈을 피하여 남면으로 기원전 3세기 말에서 기원 2세기 말까지 5차례 정도 이동해온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문헌상 확인되는 커다란 사건에 따른 이동이고, 그 외에도 수시로 주민들의 남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6)</sup> 그렇다면 신라사회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달리 그 출발부터 다양한 구성원에 의해 형성된 다문화사회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주해 온 그들을 문화전달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문화의 내용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철기문화다. 경주 지역의 유적지를 조사해본 결과,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로 갈수록 철기 유물이 증가되어 가며, 청동기 유물이 세련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로써 조선 유민의 거듭되는 남하와 정착으로 청동기, 철기가 확대

---

진한 조에서도 “진한은 원래 연나라 사람들이 피난해왔던 것이어서 탁수의 이름을 취하여 그들이 사는 읍리(邑里)를 사탁·점탁 등으로 불렀다.”고 했다.

- 2) 전덕재, 「니사금시기 신라의 성장과 6부」, 『신라문화』 21, 2003, 183~185면.
- 3) 이인철, 「사로 6촌의 형성과 발전」, 『진단학보』 93, 2002, 23~24면. 6촌 촌장 뿐 아니라 당시의 지배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주민이었음은 『삼국사기』의 곳곳에 나타난다. 탈해 이사금 역시 다파나국(왜국의 동북 1천리 거리에 있는 나라) 출신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 탈해이사금), 혁거세 거서간 때 사신을 활약한 호공 역시 본래 왜인 출신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 시조혁거세거서간.)
- 4) 이종욱, 『신라국가형성사연구』, 일조각, 1982, 16면.
- 5)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 시조혁거세거서간. “이에 앞서 중국 사람들이 진(秦)나라에서 일어난 난을 힘들어 하여 동으로 온 사람이 많았는데, 그 다수는 마한의 동면에 자리 잡아 진한 사람과 섞여 살아왔다.”라는 기록이 있다.
- 6) 이인철, 위의 논문, 19~21면.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진한은 마한의 동면에 있고, 그 노인들이 전하여 오는 말에 자신들은 옛날의 망명인들로 진역(秦役) 즉 진시황의 침입을 피하여 한국(韓國)으로 온 사람들인데 마한이 그 동면 경계의 땅을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보급되었음도 알 수 있다.<sup>7)</sup> 선진 철기문화의 보급은 무기를 비롯한 농기구 제작 등 여러 방면에 파급효과를 낳았을 것이며, 그리하여 지배 집단의 권력 강화와 농업생산력의 증가도 동반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철기문화와 같은 하드웨어적 문화교류와 달리 종교, 사상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문화교류는 신라사회를 또 다른 형태의 다문화사회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달리 말하면, 정신세계의 측면에서 신라사회의 발전은 불교문화의 도입으로 기존 무속문화 중심의 상태에서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며, 여기에는 승려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신라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는 역시 통일기인 7세기라 할 수 있으며, 이 7세기 전후의 찬란한 신라문화를 꽃피운 토양은 역시 국제교류를 통한 문화적 개방이라는 요소를 부정할 수 없다. 아래에서는 신라사회가 단지 인종이나 민족 차원의 다문화사회가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사회를 일찍이 이루었으며, 거기에는 신라 승려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즉 신라 승려들의 역할, 특히 고승의 역할을 문화전달자로서의 역할, 문화창조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사회갈등 해소자로서의 역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 II. 문화전달자로서의 역할

신라사회가 고대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춘 것은 내물마립간 시기였고 주군제(州郡制)를 실시하여 중앙집권제적 질서를 확립하고 울령을 공포한 것은 법흥왕대이다. 즉 진한 12개 소국 가운데 사로국을 중심으로 성장한 신라는 이사금 시대와 마립간 시대를 거쳐 내물마립간(356~402 재위)에 이르러 고대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었다. 내물마립간은 국내적으로 김씨 왕실과 6부 중심의 정치체제를 확립하면서 중앙집권체제의 기반을 마련했고, 국외적으로는 전진(前秦)과의 교류를 시작하여 신라 사회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다. 이어 지증왕(500~514

---

7) 위의 논문, 24~25면.

재위)대에 이르면 6부 중심의 정치체제를 극복하고 왕의 초월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다른 유력 귀족들이 왕의 칭호를 쓰지 못하게 하고, 신라라는 국호를 확정한다. 그리고 주군제(州郡制)를 실시하여 지방관을 주군에 파견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앙집권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법흥왕(514~540 재위) 7년에 율령을 공포하여 중앙집권제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15년에는 마침내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 것이다.<sup>8)</sup> 그리하여 기존의 무속적 가치체제가 중심이 되던 사회가 불교적 가치체제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전환될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불교가 도입되던 당시의 상황을 『삼국사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법흥왕) 15년(528)에 불교를 처음으로 폈다. 처음에 눌지왕 때, 중 목호자가 고구려에 와서 일선군에 이르니 그 고을 사람 모례가 자기 집 안에 굴방을 만들어 그를 있게 했다. 그때 양나라에서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의복과 향을 보내왔는데, 여러 신하들이 그 향의 이름과 쓸 곳을 알지 못하였다.(...)비처왕 때에 아도 화상이란 이가 있었는데, 시종하는 사람 세 명을 데리고 역시 모례의 집으로 왔는데, 모습도 목호자와 비슷하였다. 그는 몇 해 동안 살다가 아무런 병도 없이 죽었다. 그에게 시종하던 세 사람은 남아 있으면서 경률을 가르쳤는데, 가끔 믿는 사람이 있었다. 이때에 와서 왕이 또한 불교를 일으키려 했으나 여러 신하들이 믿지 않고 수다스럽게 떠들기만 하니 왕이 이를 어렵게 여겼다. 근신 이차돈이 아뢰었다. “청컨대 소신의 목을 베어 여러 사람들의 의론을 정하소서.” 왕은 내 본디 불도를 일으키고자 함인데,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이차돈은 죽음에 임하여 말했다. “나는 불법을 위해 참형을 받는 것이니 부처님에게 만약 신령이 있다면 나의 죽음에 반드시 이상한 일이 있을 것이다.” 목을 베자 피가 목잘린 자리에서 솟아 올랐는데 그 빛이 희기가 마치 젖과 같았다. 여러 사람들은 이를 괴이하

8) 이하의 내용은 안경식, 「신라 지성사의 구성과 그 특질」, 한국교육사학회, 『한국 교육사학』 제34권 제3호, 2012. 9. 23~58면의 내용을 이 글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게 여겨 다시는 불교를 헐어 말하지 않았다.<sup>9)</sup>

역사는 ‘사건’이다. 역사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사건’이 되어야 역사가 된다. 이 자료는 불교의 전래와 공인 ‘사건(historical event)’에 관한 것이다. 목호자와 아도 화상이 신라에 온 것이 사건이며, 이차돈이 순교한 것도 사건이다. 그리하여 조정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 사건이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의 사건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상황이 사람들의 수준이 향의 이름과 용도를 알지 못하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승려나 불교에 대한 사회 상층부(신하들)의 인식도 “깎은 머리에 이상한 옷으로 의론이 기괴하니 떳떳한 도리가 아니다.”<sup>10)</sup>는 정도였다. 법흥왕이 불교를 인정한 것의 정치적 의미는 부왕 지증왕이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국가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는 일련의 통치 과정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불교 공인은 단지 정치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곧 역사적 파동도 일으켰다. 그리하여 가시적 의미 있는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즉 진흥왕 대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절(흥륜사, 기원사, 실제사, 황룡사)이 세워졌으며,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한다든지 하는 후속 조치들이 공포되어 불교문화 전개의 물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런 조치에 힘입어 드디어 양나라, 수나라 등 중국 각 나라에 유학을 가는 승려(각덕, 안홍법사)도 생겼다. 그들이 귀국할 때는 경전을 비롯한 불교 용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sup>11)</sup>, 당연히 그들의 귀국은 국가적 행사가 되었으며, 그들은 신라의 불교문화의 전달자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문화전달자로서 고승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승려의 유학사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고대 불교의 유학사는 크

9)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법흥왕. 이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인용문은 솔 출판사에서 간행된 이재호 번역본을 사용했다. 번역본과 이 글의 인용문의 내용이 다른 부분은 연구자가 수정을 한 것이다.

10)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법흥왕 15년.

11) 당시 외교 관계를 통해서도 불교 문물이 들어왔는데, 진(陳)나라에서 사신을 신라에 보낼 때 승려(명관)와 불교 경론 1,700 여 권도 보내왔으며, 이는 당시에 발간된 불교 전적들을 거의 망라하였다고 볼 수 있어서 불교가 사상적으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진흥왕 26년.

계 3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제1기는 6세기 중엽 각덕, 명관, 지명, 담육, 원광 등이 양과 진나라를 유학한 시기이며, 유학의 문을 연 시기다. 제2기는 7세기 초반에서 8세기 초반까지 자장, 의상 등이 당나라로, 그리고 아리아발마, 혜업, 현태, 구본, 현각, 혜륜, 현유 등이 천축으로 간 시기로 유학 범위와 폭을 넓힌 시기다. 제3기는 9세기 초반부터 이른바 선문 구산을 연 선종 고승들이 선종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시기다.

불교 공인 이후,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까지의 불교문화의 전달자로서 첫머리에 언급되어야 할 인물은 역시 원광법사다. 원광법사의 문화사적 의미는 여러 방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지적할 내용은 역시 중국 유학의 개척자라는 것이다.

신라 황룡사의 승려 원광의 속성은 박씨다. 본디 삼한에 살았다. 원광은 곧 진한 사람이다. 대대로 해동에 살면서 조상의 풍습을 오랫동안 계승했는데 기량은 넓고 크며 문사를 좋아해 현학과 유학을 섭렵하였고 체자백가와 역사서를 연구하여 문장이 삼한에서는 떨쳤으나, 박학함은 중국에 비해 손색이 있었다. 드디어 친구들과 작별하고 해외에 가기로 마음을 다잡았다.(...)본디 세간의 전적을 익히 배웠으므로 신비의 궁구만을 이치라 여기더니 불교의 종지를 듣고 나서는 도리어 세간의 전적을 썩은 지푸라기처럼 여겼다. 명교를 헛되이 찾은 것이 실로 생애를 병들게 했으므로 진나라의 왕에게 글을 올려 도법에 돌아갈 것을 청하니 칙명으로 허락해주었다.(...)진평왕은 그를 면대해서 공경하고 성인처럼 높였다.(...)장계(狀啓)와 표문(表文) 등 오가는 국서는 모두 그의 심중에서 나왔으니 온 나라가 극진히 받들어 모두 정치하는 방법을 그에게 맡겼으며 도법으로 교화하는 일을 물었다.<sup>12)</sup>

사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원광이 중국 유학을 가장 먼저 갔던 사람은 아니다. 그는 진평왕 11년(589)에 진나라에 유학을 갔으며, 그 이전에 이미 각덕이나 안홍법사 등이 구법 유학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연

12) 『삼국유사』, 「의해편」, 원광서학.

은 원광을 고승전에 해당하는 「의해편」의 첫머리에 두고 제목을 ‘원광서학’이라고 정했다. 그리고 원광이 서학, 즉 중국 유학의 “길을 열었던(啓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역시 그 이전에는 “설혹 있어도 크게 떨치지 못했으며, 원광의 뒤에야 그를 이어 유학을 간 이가 끊이지 않았다.”<sup>13)</sup>는 이유 때문이다. 사실 원광은 진나라로 가기 전, 이미 신라 사회에서 “생각과 그릇이 넓고 컸으며[神器恢廓], 문사(文辭)를 좋아해 현학과 유학을 섭렵하였고 제자백가와 역사서를 연구하여 문장이 삼한에서 뛰어난” 사람이었기에 신라의 지성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 사람이 원광이다. 즉 진나라에 가서도 그는 평소 신라에서 궁금해 하던 의문을 해소한 것에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의 전환을 꾀한다. 지금까지 보던 세간의 전적을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대신 험난한 구도의 길을 택한 것이다. 승려가 된 이후의 그의 행적 역시 안주가 아니라 끊임없는 역행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에서 교화행에 나서게 되는데 “법륜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문득 세상 사람을 불법에 쫓리게 하였고, 비록 이역에서의 전교라고 하나 도에 젖으면 문득 혐극(嫌隙)을 버렸으므로 명망이 널리 퍼져 영외에까지 전파되니,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람을 지고 오는 사람이 서로 달아 고기비늘 같았다.”<sup>14)</sup>고 하였다. 그런데 필자가 원광을 문화전달자의 첫머리에 둔 것은 그가 어떤 유형의 문물을 가져왔기 때문은 아니다. 원광이 귀국한 시기는 진평왕 22년(600)이며, 수나라에서 귀국하였다. 이때 그가 국가적 환영을 받았지만 어떤 유형의 문물을 가져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물론 왕의 칙명으로 귀국하게 된 것인 만큼 대동한 귀중한 문물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유형의 문물로 그의 문화사적 위상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의 서학 자체가 불교문화 도입의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원광 이후 신라의 승려로서 어떤 형태든 ‘전’의 기록이 있는 승려(이들을 고승이라 한다면) 중 상당 부분이 해외 유학승, 즉 구법 유학승이다. 고승 가운데 구법 유학을 다녀온 비율을 정확히 따질 수는 없

---

13) 위의 책, 같은 곳.

14) 위의 책, 같은 곳.

지만 상당수의 고승들의 수학, 수행 이력 가운데 구법 유학이 빠질 수 없다는 것은 큰 특징이다.<sup>15)</sup> 이들 고승들의 구법 유학지는 천축과 중국이다. 먼저 천축 유학 상황과 그 의의를 보자. 『삼국유사』 「의해」편에는 등장하는 고승은 천축에 갔던 스님들에 대한 기록인 ‘귀축제사’ 향의 9명(阿離那, 惠業, 玄泰, 求本, 玄恪, 惠輪, 玄遊,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법사 2명)을 합쳐 모두 23명이다. ‘귀축제사’에 등장하는 스님은 바른 가르침[正敎]을 희구하여, 혹은 법에 따르고자[順法] 천축으로 간 스님들이다. 이들 가운데 그곳에서 돌아와 고국에서 활동한 사람이 없다. 그러기에 그들을 ‘문화전달자로서 고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문화전달자를 혹은 그들의 역할을 단지 신라사회만 한정할 수는 없다. 물론 이 글은 신라사회를 중심에 놓고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역할은 우리 문화를 다른 지역에 전달한 사람이며, 타 지역의 문화를 또 다른 타 지역에 전달한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야 말로 진정한 문화전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의 행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일연이 인용한 『대당서역구법고승전』을 보면, 아리야발마는 신라 사람으로 당에 들어갔다 정관 연간(627~649)에 장안을 떠나 바른 가르침을 찾고 부처의 자취를 직접 순례하기 위해 서역으로 가 나란타사에 머물렀다. 여기서 많은 율과 논을 공부했고 여러 경전도 초사(抄寫)했다. 혜업 역시 신라 사람으로 정관 년간에 서역을 가 보리사(菩提寺)에 머물며 나란타사에서 유마경을 청하여 당나라 번역본과 대조하며 연구하여 뜻을 완전히 깨우쳤다 한다.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는 혜업스님이 60세 무렵에 입적하였고 스님이 필사한 범본(梵本) 책은 나란타사에 남아있었다.<sup>16)</sup> 그런데 이들 신라 유학승이 공부하던 나란타사는 용수(龍樹, 나가르주나, 150년경~250년경)가 머물던 곳이라는 설도 있지만 5세기 경에 지어진 것으로 흔히 나란타대학이라 한다. 631년 당(唐)의 현장(玄奘, 602~664)이 이곳을 찾았을 때는 상주하는 승려가 1만 명, 교

15) 물론 유학을 하지 않고도 고승이 된 원효나 진표와 같은 이들도 있으나 그들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구법 유학을 한 고승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수학 수행 과정을 고찰해본다.

16) 『삼국유사』, 「의해편」.

수가 2천 명이었다 한다. 당시 대학의 모습에 대해서는 『대당서역기』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이경(異境)의 학자로서 성예(聲譽)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이곳에 와서 의의(疑義)를 제기함으로써 비로소 명성을 얻게 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유학하였다고 허위사실로 말하며 이곳저곳을 다닌다고 해도 어디서고 정중한 대우를 받는다. 외국 이경사람으로서 이곳 토론의 자리에 들려고 하는 자는 힐문당하여 굽히고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학식이 고금에 통달해 있는 자만이 비로소 입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유학하러 온 후진의 학자로서 학문이 깊은 사람도 10명 중 7, 8명은 물러가게 마련이다. 나머지 2, 3명의 박식한 사람도 승중(僧衆)들의 거센 질문 공세에 꺾여 그 명성을 실추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sup>17)</sup>

현장보다 늦게 의정(義淨, 635~713)이 이곳에 왔을 때 건물은 3층이고, 중국, 티베트, 몽고, 고구려, 신라 승려들이 유학하고 있었다고 하였다.<sup>18)</sup> 이들 '귀축제사(歸竺諸師)'들이 신라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들에 대한 상세한 '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교화 사적, 즉 지성의 발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남겨진 기록만으로도 이들의 유학은 지성의 연마 과정이며, 문화 대사의 역할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 유학의 상황과 그 의의를 보자. 천축 유학자를 제외하면 『삼국유사』 「의해」편에는 14명의 고승의 기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원광을 비롯하여 보양, 의상, 자장, 승전이 중국에 유학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되며, 양지, 혜숙, 혜공, 사복, 진표, 심지, 대현, 법해는 유학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원효와 같은 이도 유학을 원했던 것을 보면 중국 유학은 당시로서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닌 수행의 과정에

17) 현장, 『대당서역기』, 권9, 김호동, 「속고승전과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 입전된 한국 고승의 행적」, 『민족문화연구』 제20집(1999), 198면에서 재인용.

18) 김호동, 위의 논문, 198면.

서 선택할 수 있었던 큰 흐름으로 볼 수 있다.<sup>19)</sup> 신라 하대의 선종 고승들의 경우도 상당수가 중국에 구법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선문을 개창하였다. 『해동고승전』에는 신라승 각덕을 신라 유학의 시초[新羅入學之始]라 하였고, 그는 남조의 양나라에 유학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각덕의 유학 동기는 “높은 곳으로 가려면 골짜기를 벗어나야 한다. 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스승을 구하는 데 힘써야 한다[遷喬必出谷, 學道務求師]. 만일 편안하게 거처하고, 느릿느릿 행동한다면 이는 석가의 제자로서의 본분을 어기는 것이다.”<sup>20)</sup>라는 말에 잘 나타난다. 각덕은 진흥왕(540~576 재위) 원년에 양나라에 들어갔고, 여러 밝은 스승을 찾아다니며[歷事明師]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공부하다 진흥왕 10년(549)에 귀국하였다. 각덕 이외에도 명관, 지명, 담육 등이 양나라와 진(陳)나라 등에 유학하였다. 그 가운데 각덕 이후 유학승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람은 원광이다. 일연은 중국 유학, 당시 용어로 ‘서학(西學)’의 시대를 연 사람으로 원광을 들고 있다. 원광의 유학 동기는 불교를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학을 배우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다른 사람과 좀 다르지만 그 후의 자장은 변방에서 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기[自嘆邊生] 때문이었고, 원효와 의상은 불교의 교화를 배우기 위해 유학을 시도[西圖觀化] 했다. 낭혜화상은 출가한 오색석사의 스승 법성 선사가 일찍이 중국에서 수학한 적이 있다. 법성은 제자 낭혜 무염을 가르치며 그에게 “빠른 발로 달린다면, 뒤에 출발하더라도 앞서 도착한다는 것을 내가 그대에게서 경험했노라. 나는 만족한다. 그대에게 더 가르쳐 줄 것이 없으니, 그대와 같은 사람은 서면(중국)으로 가야 될 것이다.”<sup>21)</sup>고 하였다. 이에 무염은 “물고기는 나무에 올라가 잡을 수 없고, 토끼는 그루터기만 지킨다고 기대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스승이 가르친 바와 자기가 깨달은 것에는 서로 장점이

19) 黃有福과 陳景富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 남조 양나라 때부터 북송 전반기까지의 구법승은 223명이며, 명초까지의 구법승은 244명으로 파악되었다 한다. 黃有福, 陳景富(권오철 옮김), 『韓中佛教文化交流史』, 까치, 1995, 41면.

20) 각훈, 『해동고승전』, 대북: 문수출판사, 1988, 229면: 백제의 발정이나 고구려의 승랑을 유학승의 시초로 볼 수도 있으나 기록이 명료하지 않거나 유학승이 아닌 교학승이라는 관점이 타당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21) 대낭혜화상비, 최영성, 『역주 최치원전집 1』, 아세아문화사, 2004, 111면.(이하 사산비문은 모두 최영성의 이 책의 페이지임)

있는 법이다. 진실로 구슬이나 불을 얻었다면 구슬을 가지고 있던 조개나 불을 일으키는 부싯돌이야 버릴 수 있다. 무릇 도에 뜻을 둔 사람에게 어찌 일정한 스승[常師]이 있으랴.”<sup>22)</sup>하고 먼저 부석사의 석등 대덕에게 배움을 청하고 그 뒤에 중국으로 들어갔다. 배움은 스승이 가르치는 바와 자기 힘으로 깨달는 것이 합쳐져야 하고, 진리(불과 구슬)를 위해서라면 한 스승(조개나 부싯돌)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기에 배움을 찾아 떠난 구법 유학이었다.

다음으로 이들 고승의 학습의 과정, 즉 문화경험의 과정을 보면, 우선 이들은 한 스승,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스승과 여러 지방을 다녔고, 불교 유적지를 찾아다니는 것도 공부의 한 과정으로 삼았다. 원광을 보면, 진에 입국 후, 장엄사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에 머물지 않고 뒤에 호구산으로 옮겨 다양한 경전 공부와 수행을 병행하였으며, 자장 역시 청량산을 거쳐, 종남산 운제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찰에서 수행을 했다. 의상은 지상사 지엄의 문하에서 법장과 같이 빼어난 제자들과 지성을 나누었다. 9세기 전반의 낭혜 역시 종남산 지상사에서 화엄을 수학으로 곳곳을 유력(遊歷)하다 낙양 송산 불광사와 산서 소주 마곡사에서 마조의 제자 보철에게 수학하여 인가를 얻고, 분수와 곽산을 건너고 올라 고적과 고승을 찾아다니지 않은 곳이 없다. 그리고 진감 역시 마조의 제자 신감 문하에서 수학하다 송산 소림사, 종남산 등지를 역행(歷行)하였다. 이로써 지성의 형성 과정에서 그들은 스승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만난 스승은 모두 당시의 고승들이었다. 원광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계기가 된 승민(僧旻, 물론 원광은 승민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성실론』의 대가로서 지장(458~522), 법운(467~529)과 함께 3대 법사로 불린 인물이었다. 원광은 그 문하에서 『성실론』과 『열반경』을 공부하였다. 해동 화엄 초조인 의상의 스승 지엄(602~668)은 중국 화엄종의 2조(祖)였으며, 신라 9산의 개창자인 낭혜와 진감은 중국 선종의 마조도일(709~788)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그들이 머문 절이나 수행처는 모두 중국 불교사에서 빠질 수 없는 곳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왕실이나 고승들로부터 수학과 교화의 능력을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고행과

---

22) 위의 글, 111~112면.

역행을 공부의 과정, 지성 연마의 한 과정으로 삼았다. 이미 목숨을 걸고 먼 이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하는 자체가 남다른 면이 있지만 그곳에 가서도 일부러 쉬운 길 보다는 힘든 길을 택하였다. 원광은 구족계를 받고 공부할 때는 “강석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좋은 계책을 다 배워 미묘한 말까지 해득하여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다.”<sup>23)</sup>고 하였지만 나중에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고 성적(聖迹)을 찾아다녔다. 자장은 당 태종(599~649)의 배려로 승광별원에 편안히 머물게 하였지만 그 번잡스러움이 싫어 종남산으로 들어가 운제사 동면 산비탈에 들어가 바위에 집을 짓고 3년을 공부했다. 무염에 대해서는 “머물러 있는 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멀리하였는데, 대략은 위험함을 편안하게 여기고, 괴로움을 달게 여김에 있었으니, 사체(四體)를 종처럼 부리되, 일심만은 군주같이 받든다는 것이었다.”<sup>24)</sup>고 하였다. 또 진감은 송산에서 구족계를 받고 학림에서의 공부는 청출어람이었지만 그의 “자취는 조각구름처럼 떠다니는 신세였다.”<sup>25)</sup>고 하며, 종남산에서 “소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외롭게 쓸쓸하게 지관을 수행하던 것이 3년이요, 뒤에 자각으로 나와 네거리에 지켜 앉아 짚신을 삼아 가며 혜시(惠施)를 넓혀 바쁘게 왕래하였던 것이 또 3년이였다.”<sup>26)</sup>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들의 유학은 구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써 그 수행과 문화학습의 과정은 목숨을 건 고행이 동반되었지만 그들의 귀국은 신라사회를 문화적으로 성숙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이 당시 유학한 인도나 중국 사회는 신라사회에 비해 불교의 수준이 앞서 있었다. 즉 당시 인도는 불학의 본 고장으로 나란타 대학과 같은 곳은 학문적 수준이 가히 세계 최고였으며, 경전의 원전도 충분히 갖추어진 곳이었다. 또 당시의 남조의 상황을 보면, 송나라는 사찰 1,913소, 승려 36,000명이었고, 제(齊)나라는 사찰 2,015소, 승려 32,500명, 또 양나라는 사찰 2,846소, 승려 82,700명으로, 무제(502~549)의 숭불 정책은 불교사에서도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리고 진나라

---

23) 『삼국유사』, 「의해편」.

24) 대당해화상비, 117면.

25) 진감선사비, 178면.

26) 위의 글, 같은 곳.

는 사찰이 1,232소, 승려가 32,000명이나 되는 불교가 번성한 나라였다. 또 역경 숫자를 보면, 송에서는 465부 717권, 제에서는 12부 33권, 양에서는 46부 201권, 진에서는 40부 133권 등 총 563부 1084권 나 되었다.<sup>27)</sup> 당나라 역시 중국 역대 왕조 중 개방정책으로 문화, 종교의 황금기였고, 선진 문물을 갖춘 나라였다. 신라를 비롯한 삼국의 고승들은 유학지에서 불교 문물을 비롯한 여러 문물들을 도입하고 그것을 일본사회에 전달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신라사회가 다원 문화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문화를 일본에 전수시킴으로써 동아시아 사회가 불교를 중심으로 공동의 문화적 자산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 III. 문화창조자로서의 역할

6세기 초엽만 하더라도 신라사회의 문화 수준, 특히 불교문화의 수준은 앞서 언급한 대로 향의 이름과 용도를 모를 정도였다. 그러나 불과 1~2세기만에 신라불교의 수준은 중국과 어깨를 견줄만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7세기에 이르러 그들은 단지 불교문화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문화, 독자적 문화를 창조할 수준이 된 것이다.

신라의 고승들이 문화전달자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문화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사상적 측면에서 창조적 특성은 역시 그들의 저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실 신라 이전의 저술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몇몇 야사류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는 실정에서 본격적인 저술의 출간은 삼국, 신라시대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라시대라 하더라도 불교 이외의 저술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을 생각한다면 불교가 신라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신라 고승들의 저술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그 전모를 다 파악할 수도 없거니와 파악된 것도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7세기의 대표적 고승인 원효(617~686)만 하더라도 100종이 넘는 저술을 하였으며<sup>28)</sup> 그 속에는 유식 계통의 논서에 대한 연구서, 중관부 경론에 대한 연

27) 任繼愈 主編, 『中國佛教史』(第三卷)(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 9면.

28) 원효의 저술은 그 설이 매우 다양하다. 최근 동국대 김상현 교수는 「일본에 전

구서, 대승기신론 연구서 등 불교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의 장소(章疏)들의 창조성은 중국이나 일본에 끼친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29)</sup>

중국에서 원효의 저술에 대한 관심은 법장(法藏)의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후 이통현(李通玄)과 혜원(慧苑) 등도 원효의 저술을 인용하거나 비평하였다. 중국의 고승들 가운데 원효를 본격적으로 인용한 것은 징관(澄觀)과 종밀(宗密)부터이다. 징관과 종밀 이후, 이들의 저술 연구를 통해서 원효의 존재가 부각되고 중요시되었다. 특히 후세의 원효인식에 영향을 준 인물은 연수(延壽)인데, 그는 그의 저술 중에 원효전(元曉傳)을 수록하였고,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과 『기신론소(起信論疏)』를 인용하였다. 연수로부터 ‘대오(大悟)한 원효’라는 인식이 생겼으며, 그동안 『기신론소』를 통하여 인식되었던 원효 인식 자료에 『금강삼매경론』이 추가된 것도 연수부터이다.<sup>30)</sup> 일본 불교에서도 각 종파의 제사(諸師)들이 원효의 저서를 널리 참고 인용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법상종(法相宗) 10인(15部), 화엄종 16인(32部), 삼론종 7인(9部), 천태종 10인(13部), 진언종 7인(10部), 정토종 9인(17部), 그 외 시종(時宗)·율종(律宗) 등의 4인(4部), 모두 63인(100部)의 일본불교의 승려들이 원효의 저술 또는 그의 이름을 인용하고 있다.<sup>31)</sup> 원효의 장소(章疏)가 이렇게 해동소(海東疏)로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존중 받은 것은 그의 창의적 특성을 존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효 이외에도 저술을 남긴 고승으로는 원측, 도증, 승장, 도륜, 신방, 순경, 혜경, 달행, 경흥, 정달, 의적, 지관, 단목, 태현, 의상, 도신, 지통, 표원, 연

---

한 신라 불교 전적의 연구 현황』이라는 글(서울대 규장각, 신라사경 프로젝트 국제 워크숍, 2012년 6월 16일)에서 일본 헤이안시대(8~12세기)의 불교문헌 목록집 『고성교목록』 등에서 원효가 쓴 16종의 새 저술 목록을 확인하였다고 하였으며, 그리하여 원효의 저술이 종래 알려진 86종에서 102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그는 또 7세기부터 200년간 신라승들의 불교학 저술은 440여종이나 되며 이는 당시 신라의 불교학 수준이 중국을 뛰어넘을 만큼 놀라운 성취를 이뤄냈음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29) 福士慈稔, 「元曉著述이 韓·中·日 三國佛敎에 미친 影響」, 원광대학교 박사논문, 2001.

30) 위의 논문, 197~230면.

31) 위의 논문, 294~321면.

기, 현범, 지인, 현일 등 수 없이 많다. 이들의 저술 활동은 결국 문화창조의 행위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단지 불교 내적인 의미만이 아닌 동아시아 사상사 전반에 큰 파동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할 수 있다.

연구서의 저술과 같은 형식과 다른 형태의 문화창조는 의상(625~702)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입당유학은 중국 화엄 2조인 지상사 지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지만 귀국 후 해동화엄종의 초조로서 신라에서 화엄사상을 본격적으로 전개시킨 고승이다.<sup>32)</sup> 일연은 의상의 삶을 「의해(義解)」편에서 다루고 있다. 「義解」란 말은 뜻을 풀이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일연은 의상을 부처님 말씀의 해설자, 즉 진리의 해설자라 본 것이다. 그의 삶에 대해 일연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의상 법사는 아버지가 한신이며 성은 김씨다. 스물 아홉에 경주 황복사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지엄이) 입실을 허락하였고, 의상은 『화엄경』의 깊은 뜻을 은미한 부분까지 해석해내었다. 지엄은 영질(郢質)을 반가이 맞아 새로운 이치를 터득해내니 이는 심오하고 은미한 이치를 찾아내어 남초와 천초가 그 본색을 잃은 것이라 하겠다. (...)의상은 이에 열의 사찰에서 교리를 전하니 태백산 부석사, 원주 비마라사, 가야산 해인사, 비슬산 옥천사, 금정산 범어사, 지리산 화엄사 등이 그것이다. 또 『법계도서인』와 『약소(略疏)』를 지어 일승의 요점을 모두 포괄했으니 천 년의 본보기가 될 만하므로, 여러 사람들이 다투어 소중히 지녔다. (...)제자로는 오진, 지통, 표훈, 진정, 진장, 도융, 양원, 상원, 능인, 의적 등 열 명의 고승이 영수가 되었는데, 모두 아성이며 각기 전기가 있다.<sup>33)</sup>

위의 인용문에서 다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29세라는,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에 출가한 후, 그의 삶에서 구도자적 성격은 오히려 약하다. 화엄학의 대가인 지엄 선사가 의상을 제자로 여기기보다는 학문과 문자를 서로 질의할 만한 상대라는 의미의 ‘영질’로 맞이한 상황이었

32) 안경식, 앞의 논문, 41~42면.

33) 『삼국유사』, 제5 「의해편」, 의상전교.

다. 물론 그의 학문은 그곳에서 더욱 향상되어 오히려 지엄을 능가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그의 삶의 의미도 ‘의해’, 즉 진리의 해설자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를 둘로 나누면, 하나는 화엄학을 신라에 들여와 신라인의 삶, 특히 지성과 문화의 영역을 넓혀 놓았다는 개척자로서의 의미와 다른 하나는 그가 공부한 화엄학을 신라의 실정에 맞게 새롭게 재창조하였다는 창조자로서의 의미다. 특히 후자, 즉 재창조(이것이 ‘의상전교’의 핵심이다)는 다시 몇 가지 형식으로 펼쳐지는데, 하나는 광대한 화엄학을 하나의 도인(圖印)의 형식으로 요약하여 신라인에게 제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연은 “술 안의 고기맛을 알려면 한 점 살코기만 맛보아도 되는 것”으로 표현한 바 있다.<sup>34)</sup> 다른 하나는 강의의 형식이다. 의상은 부석사에서 40일간의 ‘일승십지문답’, 황복사에서 ‘법계강의’, 태백산 대로방에서의 ‘행경십불강의’, 소백산 추동에서의 90일간의 『화엄경』 강의 등 여러 차례의 집중 강의를 통해 당시 신라 지성들을 일깨웠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실은 화엄사상이라는 하나의 사상이지만)으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출신의 대상들에게,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강의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사실 의상의 강의 자체가 문화전달이자 문화창조였는데, 그의 강의는 뒤에 제자들이 또 다른 화엄학의 창조적 행위의 바탕이 되었다. 즉 그의 제자 지통(智通, 655~?)은 이량공의 노비 출신이었는데 의상의 소백산, 태백산 강의에 참여하여 『추동기』를 지어 신라 후기의 화엄학승과 균여의 저서에 두루 인용될 만큼 영향을 끼쳤으며, 도신(道身) 역시 『도신장』을 지어 후학들에게 광범위하게 인용되었다. 표훈 역시 의상의 강의를 듣고 독자적인 해석을 남겼으며 의상과 함께 흥륜사 금당에 모신 십성(十聖)의 하나로 꼽힌 인물이 이었던 것을 보면<sup>35)</sup>, 제자 교육이라는 형식을 통해 문화창조를 가능하게 하였다 할 수 있다. 의상의 문화 창조의 또 하나의 형식은 사원 조영이다. 귀국 직후 조영한 낙산사를 비롯하여 왕명을 받고 조영한 부석사 등의 사원 조영은 종교사적 의미뿐 아니라 문화사적, 지성사적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다. 즉 그의

34) 『삼국유사』, 제5 「의해편」, 의상전교.

35) 정병삼, 「8세기 신라의 불교사상과 문화」, 『신라문화』 제25집, 2005, 192면.

사원 조영은 한편으로는 종교적 성소로서 교화의 공간의 창출이지만, 사상적으로는 화엄사상, 아미타사상 등 철학적, 사상적 이념의 형상화 작업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의상의 전교는 문장과 언어, 건축 등 다양한 미디어를 동원함으로써 이루어졌고, 따라서 그의 지성사적 위치 역시 단순히 해동 화엄 초조라는 사상 수입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동 화엄 문화의 창조자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7세기 이후 이상과 같이 교리적인 내용의 독자적 해석과 창조적 견해의 표명 그리고 창의적 사원문화 확산과 아울러 주목할 것은 율(律)에서조차 신라적인 특성을 드러내었다는 사실이다. 염중섭의 연구에 의하면<sup>36)</sup>, 한국불교의 율은 자장(590~658)을 시원으로 하는 서상수계(瑞祥受戒)와 강한 신이성(神異性)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자장의 한국 불교적인 율 관념의 정립에 있어서는, 통도사의 계단(戒壇) 건립과 관련된 중국의 남산율종(南山律宗)을 능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불교의 율은 중국과 변별되는 특수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자장이 위치한다. 또 자장과 같은 경우는 문무신앙(文殊信仰)과 율을 결합시키고 있다. 이는 소승 율과는 다른 대승 율, 혹은 대승 계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동북아 대승불교문화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소승 율은 승단과만 관련되는 특수한 종교법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그러나 자장에게서의 율은 승단을 초월해서 사회전체를 교화하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장 율의 정신이 소승 율에 제한되는 구조가 아닌, 전체의 완성이라는 불교의 보다 포괄적인 관점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결국 창의적 불교문화의 형성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신라사회가 6세기 이후에는 불교문화가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가 되어 갔다. 그러나 불교문화 자체를 볼 때, 8세기 이후 다시 다양성, 창의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때 다시 중국으로부터 선종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나말여초에는 이른바 선문구산이 성립하게 되고 한국불교의 부흥기에 접어든다. 선종의 도입 과정을 여기서 상세히 설명하기 어려우

36) 염중섭, 「자장(慈藏) 계율사상(戒律思想)의 한국불교적인 특징」,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 제65권, 253~283면.

나 그 의의는 일찍이 최치원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대저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고, 사람에게는 다른 나라가 없다 [道不遠人, 人無異國].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법이나 유학을 배우는 것은 필연적이다. 서면으로 큰 바다를 건너 통역을 거둬다가며 학문에 종사할 제, 목숨을 통나무배에 맡기면서도 마음은 서역에 달려 있다. 빈 채로 갔다가 울차게 돌아왔는데, 험난한 일을 먼저하고 얻는 바를 뒤로 하였으니, 역시 보옥을 캐는 자가 곤륜산의 높음을 꺼리지 않고, 진주를 찾는 자가 검은 용이 사는 바닷물 속의 깊음을 피하지 않는 것과 같았다. 드디어 지혜의 햇불을 얻었으니 빛이 오승(五乘)을 밝게 하고 유익한 말을 얻었으니 맛이 육경(六經)에서 배부르게 하였는데, 다투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善)에 들도록 하고, 능히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인(仁)을 일으키게 하였다.<sup>37)</sup>

즉, 유학을 공부하는 자나 불교를 공부하는 자를 막론하고 신라 사람이 멀리 중국이나 인도로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것은 도를 위해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니, 도를 배우는 사람에게 내 나라 남의 나라의 구분은 의미 없다는 말이다. 앞서 우리 고대불교의 유학사를 세 시기로 나눈 바 있다. 그 가운데 제3기가 9세기 초반부터의 선문 구산을 연 선종 고승들이 선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한 시기다. 그러나 고승들의 문화전달자로서의 역할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일정한 시기가 지나자 이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유학승은 급격히 줄어들고(물론 중국과 신라 국내의 사정도 있다), 국내에서도 유학을 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산문을 개창하는 고승이 등장한다. 지증대사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이를 두고, 최치원은 “무엇하러 (멀리 고비 사막과 파미르 고원의 험한 언덕을 건너고 넘기 위해)뱃줄을 잡고 말뚝을 박을 것인가!”<sup>38)</sup>라고 하면서 이제는 중국에 의지하지 않고도 자립하여 산문을 개창할 정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 “대북쑤이 삼대[麻]에 의지하여 스스로 곧을 수 있었고, 구슬을 내 몸에서 찾으매 이웃에게

37) 진감선사비, 170~171면.

38) 지증대사비, 332면.

빌리는 것을 그만 두었네.”라고도 했으며, “따로이 지계문을 나가거나 들창으로 내다보지 않고도 대도를 보며, 산에 오르거나 바다에 나가지 않고서도 큰 보물을 얻어”<sup>39)</sup> 교화를 펼칠 수 있었다고도 했다. 이것이 바로 고승들의 문화창조자로서의 역할을 말한 것이다.<sup>40)</sup>

#### IV.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

다문화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문화간에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신라사회도 문화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노출되었는데, 사상 간의 갈등, 골품제라는 신분제에 따른 갈등, 삼국통일로 인한 구성원 간의 갈등 등이 그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조정자로서 고승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신라사회에 불교가 언제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유교도 마찬가지다. 신라의 사상으로는 무속과 선도, 화랑도, 유교와 도교, 그리고 불교 등을 들 수 있으며, 불교가 들어올 당시 기존 사상들, 특히 무속과의 갈등 상황이 없지 않았다. 이차돈의 순교나 진지왕(576~579 재위)대의 도화녀 비형량 설화 등이 그 사례이다. 그러나 무불습합(巫佛習合)이란 말이 이야기하듯이 불교는 무속의 전통을 상당 부분 흡수하였다. 무속에서 받들려진 신들은 신중단에 모셔진 화엄성중의 부류로 들어오게 되었으며<sup>41)</sup>, 또 재래 무속이 담당하던 기능을 불교의 승려들이 대신하게 되었다. 무속의 천신이 제석천으로 바뀌는 등 재래의 신들에게는 불교식 이름을 붙여 주었으며, 그들이 거처하는 신성지역도 불교적으로 성역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불교 공인 뒤 불교 승려 역할 중 하나는 질병을 고치거나 자식을 구한다든

39) 지증대사비, 308~309면.

40) 안경식, 앞의 논문 참조.

41) 화엄성중은 『화엄경』의 「세주묘엄품」(『八十華嚴』, 『大正藏』10) 또는 「세간정안품」(『六十華嚴』, 『大正藏』9)에 출현하는 39류의 세주들과 그들과 함께 무교의 제관이 습합된 104위 신장이 있다. 전해주, 「한국의 종교간의 대화와 불교」,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한국종교연구』 제4호, 2002, 1~18면.

지 하는 개인의 현세적 이익을 기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종래의 무격의 기능을 불승이 대신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고승들이 국가의 발전을 비는 호국법회인 백고좌회나 팔관회를 주관하는 것도 종래의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승들이 향가를 지어 주술적 힘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도 역시 무격의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sup>42)</sup>

원광은 진평왕 22년(600)에 귀국하였는데 귀국 후, 불교 강의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외교 관계 문서를 작성했으며 국정자문 역할도 담당했다. 아울러 유명한 원광의 세속오계 고사는 당시 신라인들이 느끼고 있던 불교와 유교의 갈등 상황을 해소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당시의 현사(賢士) 귀산과 추항은 “우리들은 덕행이 높고 학문이 있는 이와 교유하기로 기약했는데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고 몸을 닦지 않으면 아마 치욕을 당함을 면치 못할 것이니, 어찌 현자(賢者) 곁에 가서 도리를 듣지 않으랴.”<sup>43)</sup> 라고 하면서 가실사에 거주하고 있는 원광에게 가르침을 청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원광의 가르침인 세속오계는 사실 불교 계율이라기보다는 유교가 우선되는 계율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전쟁 상황에서 신라의 청년들은 특히 불살생의 계율에 대해 갈등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원광은 살생 유택을 제시하였고,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육재일(六齋日)과 봄철·여름철에는 살생하지 않는 것이니 이는 시기(번식기)를 가리는 것이며, 가축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말·소·닭·개를 죽이지 말란 것이며, 작은 동물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고기가 한 점도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꼭 필요한 만큼만 잡고 많이 죽이지 말 것을 말한다는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사실 앞서 보았지만 원광은 원래 유학자였고, 유학자로서 유학을 갔다가 승려가 된 사람이다. 그런 만큼 누구보다도 유학과 불교의 이념을 잘 이해했고, 양자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데 책임자였다. 그리하여 귀국 후에도 유교와 불교의 갈등, 국가적 존재로서의 삶과 개인적 존재로서의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해주는

42) 무관, 「신라의 밀교전래와 전개 양상」, 동국대석림회, 『석림』 제33호, 1999, 192면.

43) 『삼국사기』, 열전 제5, 귀산.

국가의 원로이자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통일기의 고승들은 사상적으로 통일과 화해의 논리를 제시하였음은 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므로 여기서는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그 내용을 원효와 의상에 한정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즉 원효의 화쟁사상이나 의상의 화엄 법성원융사상 등은 불교 내의 논쟁을 회통시키는 논리를 넘어 사회의 갈등과 화해를 촉진시키는 논리가 되기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원효는 『십문화쟁론』을 통하여 쟁론을 멸진하는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이는 자타의 대립과 모순, 시비의 모순과 쟁론을 조화 회통시켜 일승의 진리에 이르게 하는 화쟁의 논리인 것이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다양한 교학을 연구하면서 각각의 교학적 이론들 사이에 생기는 모순점과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 교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다. 최연식은 원효는 모든 존재들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보법(普法) 사상에 의거하여 모든 차별과 대립들이 사라진 본질적인 세계를 추구하였고, 화쟁사상은 이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세계로 도달하기 위한 이론적 틀이었다고 말하고 있다.<sup>44)</sup> 원효의 보법적(普法的) 사고방식에서는 모든 존재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고, 개별 존재들의 차이는 단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개별 존재의 고유성은 인정되지 않았고, 모든 존재의 차이는 동일한 사물의 서로 다른 반영으로 간주되었다. 모든 존재의 본래적 동일함은 전지전능한 부처의 존재, 혹은 진리의 본래적 유일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결국 원효의 화쟁은 본래 동일한 것의 서로 다른 측면들이 자신들의 동일함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할 수 있다. 원효의 이러한 화쟁사상은 글자 그대로 불교학의 여러 쟁론[諍]을 화해[和]시키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sup>45)</sup> 원효는 화쟁사상 이외에도 자신의 저술인 『금강삼매경론』에서 ‘본각(本覺)’·‘시각(始覺)’설을 이야기 했는데, 이가 당시 사회의 갈등 해소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을 수도 있

44) 최연식, 「元曉의 和諍사상의 논의방식과 사상사적 의미」, 『보조사상』 제25호, 2006, 406면.

45) 원효의 화쟁사상이 종교적 화쟁을 넘어 당시 사회의 차별과 모순을 해소하는 이론으로 기능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화해와 조화의 원리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진다.

다.<sup>46)</sup> 즉 원의 교학적 성숙기와 통일 전쟁 수행기가 겹치는데, 그의 학적 성과가 국가의 모순 완화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본각의 역할과 이에 내재된 평등성을 강조함으로써 본각과 시각을 통합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二覺圓通], 이러한 논리는 결국 당시 사료계 왕실의 등장과 대중교화에 치중하는 신진 불교세력은 본각의 평등성에 의한 시각의 통합이라는 논리를 환영했을 법하다. 이를 통해 기존 권위에 대한 저항 의식이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상의 원용사상 역시 신라 중대의 전제주의와 관련하여 해석되어 왔다.<sup>47)</sup> 즉 일체의 제법상이 각각 무분별한 본성을 가지면서 각위(各位)에 머무르지 않는 부주(不住), 무주(無住)의 특성으로 인하여 원용무애하게 된다는 육상원용(六相圓融)의 사상은 중대의 통일 논리로 이해되어왔다는 것이다. 조동일은 의상의 법성계 가운데 가장 긴요한 대목이 “하나 가운데 일체고, 많음 가운데 하나이며, 하나가 바로 일체이고, 많음이 바로 하나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하나·일체·많음이 서로 구별되지 않고, 서로 내포하고 서로 일치하는 관계에 있다고 한 말로 현상과 본질, 다원과 일원의 구별을 넘어선 것이다. 조동일은 또 이 점에서 보면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에서 주장한 것과 다르지 않으나 자세히 보면 구분을 말고 어디 머무르지 않아야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강조한 데 비해 의상은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울리고 하나에 무엇이든지 내포한 확고한 질서를 염원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삼국을 통일하고 통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당대의 지도 이념 수립에 기본 논리를 제공한 것만은 틀림없다고도 하였다.<sup>48)</sup> 그러나 의상이 당대의 지도 이념을 제공하기 위해 원용무애사상을 ‘고안’한 것은 아니다. 원효나 의상의 사상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던 간에 불교사상으로 제시된 것이고, 불교사상으로서 사회의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46) 이러한 주장은 이병학, 「元曉의 ‘二覺圓通’사상과 그 사회적 의미」,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연구』 제44호, 2006, 195~228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47) 김두진, 「의상의 육상원용사상」, 한국사상사학회, 『韓國思想史學』 제4~5합집, 1993, 13~42면.

4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제3판)』, 지식산업사, 1995, 190면.

##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신라사회가 건국 초기에는 인종적, 민족적 다문화사회로 출발하여 6세기 이후 불교가 국가 공인을 계기로 종교적, 문화적 다문화사회로 변환됨으로써 문화적 강국이 되었고, 이에 고승의 역할이 컸음을 말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와 관련하여 신라사회에서 고승의 역할을 본문에서 문화전달자, 문화창조자,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였다. 문화전달자로서의 역할에서는 다수의 신라의 승려들이 천축이나 당나라에 구법유학을 떠났고 현지의 문화를 신라를 비롯한 타지에 전달함으로써 동아시아사회를 보다 개방된 사회, 문화적 다양성이 있는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또 문화창조자로서의 역할에서는 외지에서 받아들인 문화를 바탕으로 현지의 문화를 새롭게 창조하였다는 것을 말하였다. 또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에서는 화쟁사상, 원융무애사상 등 불교사상으로 조화와 모순 극복의 논리를 제시하였다는 것과 아울러 무속이나 유교 등 다른 사상과의 갈등 해소에 고승이 역할을 하였음을 이야기하였다.

21세기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상황과 10세기 이전 신라사회에서의 다문화 상황을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사회에서 고승이 수행한 역할은 이 시대의 불교도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다음과 같은 반성과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신라의 고승들은 외래 문화수용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점이다. 그들은 문화수용에 적극적이었기에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이자 지식인이 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앞서 갈 수 있었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신라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 체류 외국인 150만 시대의 현금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이고, 이 다문화사회에 불교인들이 얼마나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신라의 고승들이 타사상, 타문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다문화사회인 이 시대에 불교인들이 타문화 수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라의 고승들은 시대 문화의 창조자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

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불교인들이 다문화시대에 맞는 불교문화의 창조나 사회문화의 창조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대 문화를 이끄는 것이 반드시 불교여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시대에 맞는 불교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 신라의 고승들이 발휘한 역동성이나 창의성을 생각할 때 20세기 혹은 21세기 우리가 창조한 불교문화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화를 어떻게 창조해야 하는지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신라의 고승들은 사회의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점이다. 다종교사회이자 다문화사회인 현대사회에서는 종교적 갈등이 사회적 갈등의 한 요소로 분명히 자리잡고 있고, 때로는 종교인이 그러한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까지 있다. 종교, 사상의 갈등 상황에서 종교인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신라사회의 고승들에게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입 당시 외래사상으로 갈등도 없지 않았던 불교사상이 지금은 한국의 전통사상이자 전통문화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그러나 개혁하지 않는 전통은 보수로 전락할 수 있으며, 존립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음은 역사적으로 유교의 예에서 보았던 바다. 다문화사회의 도래는 위기의 징후이지만 신라사회는 오히려 다인종과 다문화를 통해 폐쇄성, 고립성을 극복하고 중세 보편문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지금의 한국사회도 문화적 안정성의 위기는 진정한 의미의 다원문화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며, 문화적 세계화의 기회와 통로가 될 수 있다. 이에 불교인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다.

<참 고 문 헌>

- 김두진, 「의상의 육상원용사상」, 한국사상사학회, 『韓國思想史學』 제4~5합집, 1993.
- 김부식(이재호 역), 『삼국사기』, 솔, 1997.
- 김호동, 「속고승전과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 입전된 한국 고승의 행적」, 『민족문화연구』 제20집, 1999.
- 무관, 「신라의 밀교전래와 전개 양상」, 동국대석림회, 『석림』 제33호, 1999.
- 전해주, 「한국의 종교간의 대화와 불교」,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한국종교연구』 제4호, 2002.
- 전덕재, 「니사금시기 신라의 성장과 6부」, 『신라문화』 제21호, 2003.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제3판)』, 지식산업사, 1995.
- 안경식, 「아미타신앙이 한국고대교육문화에 끼친 영향」.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제3집, 1993.
- 안경식, 「관음신앙이 한국고대교육문화에 끼친 영향」.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제4집, 1994.
- 안경식, 「미륵신앙이 한국 고대 교육문화에 끼친 영향」,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제16집, 1994.
- 안경식, 「신라 화엄사상이 한국고대교육문화에 끼친 영향」.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제5집, 1996.
- 안경식,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유학교육사상」, 국학진흥원, 『한국유학사상대계 V』, 2006.
- 안경식, 「전통사회의 교육공간으로서 불교의 사원」.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29집, 2009.
- 안경식, 「마조 전사의 사상과 그 교육학적 의미」,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제25권 제3호, 2011.
- 안경식, 「한국고대사연구와 불교 지성으로서 고승」,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33권, 2010.
- 안경식, 「신라 지성사의 구성과 그 특질」,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제34권 제3호, 2012.
- 염중섭, 「자장(慈藏) 계율사상(戒律思想)의 한국불교적인 특징」,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 제65권.

이병학, 「元曉의 ‘二覺圓通’사상과 그 사회적 의미」,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연구』 제44호, 2006.

이인철, 「사로 6촌의 형성과 발전」, 『진단학보』 제93호, 2002.

이종욱, 『신라국가형성사연구』, 일조각, 1982.

일연(이재호 역), 『삼국유사』, 솔, 2006.

정병삼, 「8세기 신라의 불교사상과 문화」, 『신라문화』 제25집, 2005.

최연식, 「元曉의 和諍사상의 논의방식과 사상사적 의미」, 『보조사상』 제25호, 2006.

최영성, 『역주 최치원전집 1』, 아세아문화사, 2004.

圓仁(신복룡 역), 『入唐求法巡禮行記』, 정신세계사, 1991.

福土慈稔, 「元曉著述이 韓·中·日 三國佛敎에 미친 影響」, 원광대학교 박사논문, 2001.

黃有福, 陳景富(권오철 옮김), 『韓中佛敎文化交流史』, 까치, 1995.

覺訓, 『海東高僧傳』,臺北: 文殊出版社, 1988.

任繼愈 主編, 『中國佛敎史』(第三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

<Abstract>

Roles of the Venerable Monk in Multicultural  
Society  
– Focused on Silla society –

Gyeong–Sik A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 analyzing that Silla society was a multicultural society, not an isolated monocultural society and second, what kind of role did Venerable monks, highest intellectual group in Silla society, played related to multicultural society, third, through this process, we should think about what kind of role should Buddhist play in 21st century Korean society as a new multicultural society. Foundation of Silla dynasty has not started from the natives, who maintained monoculture, but migrants who had different cultures. Therefore, it is safe to say that Silla was multicultural society since the beginning. However, it was introduction of Buddhism that made Silla as a actual multicultural society, not nominal multicultural society based merely on ethnicity. Venerable monks in Silla played as 3 roles following: cultural transferor, culture creator, and cultural mediator. In the begging of 6th century, a number of monks left to Ancient India or Tang Dynasty to study abroad for Buddhism, and eventually they made East Asia as more opened and culturally diversified society, by transferring cultures native cultures to

other area. Also, Venerable monks created new Silla culture based on the culture from other areas while suggesting harmonies and logics for solving contradictions according to Buddhism ideas, such as Hwajaeng(和諍) theory and Wonyoung(圓融) thought. This thesis also covers that it helped a lot solving the confliction with other beliefs like shamanism or Confucianism. These acts that Venerable monks have performed in Silla society urge Buddhist in modern days to break away from passive role, and to perform active cultural role.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Venerable Monk, Silla, Intellectual, cultural transferor, culture creator, and cultural mediator

---

▶ 투고일: 2013. 5. 3. ▶ 심사(수정)일: 2013. 6. 5. ▶ 게재확정일: 2013. 6. 17.